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새로운 부모역할 제안: 변화하는 부모역할 개념과 수행을 중심으로*

A suggestion for new parental roles according to children's developmental stages: The changing parental roles and practices

나중혜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 전공

Jong-Hay Rha
Dept. of Child Development & Guidance, Hannam Univ. Associate Professor

Abstract

This current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meaning of being a mother and a father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by examining their roles perceived by mothers and fathers with children at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s. A total of three hundred and ninety four couples with children aged from one to seventeen years were recruited for the study, and they were asked to complete a set of questionnaires about paternal and maternal roles each. A modified version of Generative Fathering Scales by Lee et al.(1999), was used to measure the roles perceived by fathers and mothers in two areas: (1) parenting responsibilities and (2) involvement in childrearing practices. The parental roles, as expected, were viewed differently by the surveyees with children at different ages: the younger child/ren a father has, the more involvement he emphasizes in childrearing.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roles of mothers and father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developing children.

Key Words : parenting responsibility, childrearing, parental roles

I. 연구의 필요성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에서부터 시작하여 자녀의 잠재능력을 키워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는 부모-자녀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적절한 부모역할은 자녀의 성장, 발달에 필수적이며, 유능한 아동 뒤에는 자녀의 지적 발달과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가 있다(정옥분, 정순화, 2000).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소가족화 현상과 여성 취업인력의 증가 및 결혼의 불안정성 등 여러 가지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내의 변화는 부모의 역할이 전통적인 방식대로 답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조기 교육을 시작하는 유아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학동기 아동들의 사교육비 수준이 가족 생활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등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들의 투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학군에 따라 지역의 아파트 값이 결정되는 현상이나 가족을 외국에 보내고 아버지만 남아 경제적으로 뒷바라지하는 '외기러기족'이 증가하는 등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들의 과도한 노력은 파행적인 사회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과연 우리 시대에 바람직한 부모역할이란 무엇일까?

아동이 발달 단계를 거쳐 성장함에 따라 아동의 욕구와 양육자에게 요구하는 반응은 변화하고 이에 따라 부모들의 자녀 양육 방법도 변화하게 된다. Erikson은 부모들이 아동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아동의 발달 수준에 따라 그들의 접근 방법을 변화시켜야 함을 배우게 되는 과정과 이러한 부모의 입장이 다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03-C00143).

Corresponding author: Jong-Hay Rha

Tel: 042)629-7893, Fax: 042)629-7437

E-mail: jhrha@hannam.ac.kr

과정을 발달적 상호작용(developmental interaction)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Bigner, 2002). 즉 가족이란 발달 과정에서 서로 다른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하는 인성의 체계이며 부모의 발달단계와 자녀의 발달 단계는 서로 맞물려서 발달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효율적인 부모역할을 위해서는 부모역할의 특성이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의 습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정옥분, 정순화, 2000).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교육 이론서나 지침서에서는 발달해 가는 부모역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단계별 부모역할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현재까지 없었으며 구체적인 부모역할의 제시가 미흡하였다.

현재까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의 특정 행동, 예를 들어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태도, 양육방식, 양육 가치관, 양육 스트레스, 부모역할 만족도 등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강기숙, 이경남, 2001; 김민정, 도현심, 2001; 문혁준, 1998; 박성연, 1998; 박주희, 이은혜, 2001; 연미희, 1998; 정현희, 최경순, 1995). 그러나 이 연구들은 부모의 역할이 아동의 특정 부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영아기나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 각각의 발달단계별 시기 안에서만 연구하여 단편적인 결과만을 보고할 뿐 발달단계를 연결하여 부모역할의 본질적인 공통점과 시기별 차이점을 찾아보려는 시도는 없었다. 또한 부모 역할을 해내는데 있어 부딪치는 특정한 차원만을 주제로 하고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최근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어머니의 역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어서 막연히 아버지 행동이 어머니 행동과 비슷한 영향을 아동에게 미칠 것이라는 전제가 지배적이며 아버지나, 어머니 한 쪽만을 연구할 뿐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연구에서 비교하는 연구는 드문 편이었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부모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영아기, 유아기,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의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자신과 상대의 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하는 부모의 역할은 어떠한가?

- 2)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

1) 아버지 역할에 대한 견해

현대 사회는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아버지 역할의 재발견 시대”라고 표현되고 있다(Lamb, 1977). 이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가족구성원간의 역할 변화에도 기인하지만 별거, 이혼 등이 늘어나면서 편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성연, 2001).

Parson은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은 도구적이고 수단적(instrumental role)이라고 하였다. 즉 아버지는 가족 외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가정의 경제적 담당자로서 생활비를 조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아버지는 소득을 위해 항상 밖에서 생활해야 하므로 자녀에게 주로 환경적 자원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유영주, 김경신, 김순옥(2000)도 아버지의 역할을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것으로 보아 아버지는 가정에서 경제적 담당자로서 생활비를 조달하며,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도 있다고 하였다.

한 편, 민주적인 아버지인 경우에, 아버지는 자녀의 좋은 동료가 되어 이성적이고 공정한 판단자의 역할을 하며 자녀에게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다고 하였다(유영주 외, 2000). 실제로 자녀에게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아버지가 자녀의 인지, 정서, 사회성, 성취동기, 성역할 등 모든 영역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Oliveri &Reiss, 1987; Thompson &Walker, 1989). 아버지는 어머니가 영아기의 자녀와 상호작용하고 돌보는 데 보내는 것만큼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지만(Lewins & Weinraub, 1976) 아버지가 자녀와 하는 놀이는 보다 새롭고, 예측하기 힘들며, 자극적인 것으로 주로 신체적인 놀이를 하여 자녀에게 강한 정서를 불러일으킨다(Belsky &Volling, 1987). 보다 나이 든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명령적이며 교육적인 경향이 있었다(Thompson &Walker, 1989).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바람직한 양육과 보호는 아동의 균형 잡힌 성장에 필수적이며, 아동기 자녀의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재택

근무 등의 다양한 직업의 출현 등으로 앞으로는 아버지들의 표현적인 역할이 더 요구될 전망이다(조성연, 2001).

2) 어머니 역할에 대한 견해

어머니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으로, 어머니를 통해 아기는 사회화의 기초가 형성되고 모든 욕구충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역할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어 왔다(조성연, 2001). Parsons는 전통적으로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 표현적 역할(expressive role)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감정적 지지자이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불편한 일이 생길 경우 이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가족 내의 애정적 표현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 아버지들과 비교하여 어머니는 영아를 보다 자주 보살피주고, 보호해주며, 편안함과 다양한 자극을 제공해 준다(Lewins & Weinraub, 1976). 유영주와 동료들(2000)은 한국 전통 사회에서 어머니는 자녀의 성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최초의 사회화 과정의 대행자이며, 자녀에 대하여 표현적·정서적 역할 뿐 아니라 자녀의 건강과 위생을 책임지고 다른 가족과의 관계에서 교량적 역할을 하며 종교적 차원에 이르는 도덕적 교육까지 담당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어머니 역할은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먼저 남편의 동반자로 역할이 확장되면서 의사결정권이 많아졌고 가정관리자의 역할도 확장되어 가계를 계획하고 물품을 구입하는데 예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어머니와는 다른 측면으로 자녀의 사회화와 관련된 활동이 많아졌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및 활동이 증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고유 영역이던 가족부양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이재연, 김경희, 1989).

이연섭과 강문희(1998)는 바람직한 부모는 교사, 모델, 의의 대상자, 성역할 평등개념 전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자녀들에게 좋은 행동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며, 자녀의 습관이나 행동을 가르쳐주어야 하고, 때로는 상담자로서, 그리고 자녀에게 성에 따른 역할 및 행동을 가르쳐주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2. 변화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

1) 시대에 따른 부모 역할

19세기까지의 부모역할은 효과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보다 자녀의 생존을 위한 양육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부모의 역할은 엄격한 체벌을 통한 교육, 자녀의 신체와 저신에 대한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이후 20세기에 들어와 행동주의자들은 자녀들은 백지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역할은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통해 좋은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이르러, Freud학과 Gesell 등 발달론자들의 영향으로 부모역할은 자녀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자녀를 만족시키며,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자녀의 발달과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정현숙, 유계숙, 어주경, 전혜정, 박주희, 2002).

20세기 중반의 Piaget와 인성론자들의 등장은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만족시켜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발달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Piaget는 삶의 경험에 대한 복잡한 지적 체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아동의 자발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발달을 위해 적절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성론자들은 인간 유기체가 충분히 성숙하기 위해서 환경적 자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Hammer & Turner, 2001). 발달학자들의 아동발달에 대한 견해와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뿐 아니라, 초혼 연령의 증가, 맞벌이 가족의 증가, 가족 크기의 감소 등 일련의 인구통계학적인 변화는 가족 내에서 아동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켰으며,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부모역할을 요구한다(정현숙 외, 2002).

2) 발달하는 부모 역할

Erikson은 개인의 발달이란 기본적인 생물학적 법칙에 따른다고 해도 주변 환경인 가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나아가 개인, 집단, 기관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Bigner, 2002; 이은화, 이경우, 1991). 가족 내의 사회화 과정을 살펴볼 때, 가족이 동적인 발달 상태에 있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발달적 상호작용'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념에서 가족이란 발달 과정에서 서로 다른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 하는 인성의 체계라고 설명한다. 즉, 부모와 자녀는 각자의 발달 단계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데 부모는 생산성 대 자아 침체의 심리사회적 단계로 진입하여 '자녀에 대한 신뢰와 양육(to give and to take care of)'이라는 심리사회적인 욕구를 갖게 되는 한 편, 자녀는 타인에 대한 신뢰를 배우는 발달적 시기에 속하여 '신뢰성 획득과 타인 신뢰'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부모의 욕

구와 자녀의 욕구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호작용과의 일치
가 존재한다(Bigner, 2002).

부모와 자녀 간에 발달단계나 욕구가 일치되는 것은
영아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 속에 있는 개인
의 생활을 통하여 계속되는 것이다. 아동이 발달단계를
거쳐 올라감에 따라 아동의 욕구와 이러한 욕구에 대한
반응은 변화하고 부모들의 자녀 양육 방법에 영향을 미
친다. 부모들은 성장하고 발달하는 아동과의 상호작용으
로부터 아동의 발달 수준에 따라 그들의 접근 방법을 변
화시켜야 함을 배우게 된다. 부모의 입장에서 이러한 방
법은 아동들에게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끼친다. 아동은
부모의 생산성을 발달시키는 감정을 도와주거나 제지시
키고, 부모는 아동이 각 발달 단계에서 도전을 받을 때
도와주거나 제지시키는 지속적인 상호 작용적인 순서에
따라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이은화, 이경우, 1991).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은 <표 1>과 같이 영아 및 걸음마기(1세-4
세), 유아기(5세-7세), 초등학교 저학년(8-10세), 초등학교
고학년(10-12세), 청소년기(13-18세) 자녀를 둔 어머니 394
명, 아버지 385명으로 총 779명으로 모두 D시에서 모집
되었다. 각 연령 당 참여한 연구대상의 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은 <표 2>와 같다. 부모
의 연령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 30대가 299명(75.89%)
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의 경우는 30대가 242명(62.86%)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0대가 128명(33.25%) 순이었다.
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표 1> 자녀의 연령별 연구대상

	어머니 (n=394)	아버지 (n=385)
영아 및 걸음마기(1~4세)	90	89
유아기(5세~7세)	113	110
초등학교 저학년(8세~10세)	54	53
초등학교 고학년(11세~13세)	91	89
청소년기(14~18세)	46	44
계	394	385

<표 2>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어머니 (n=394)	아버지 (n=385)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연령	20대	36(9.14)	11(2.86)
	30대	299(75.89)	242(62.86)
	40대	59(14.97)	128(33.25)
	50대	0(0.00)	4(1.03)
학력	고졸이하	194(49.24)	136(35.42)
	전문대졸/대학중퇴	95(24.11)	67(17.45)
	대졸	97(24.62)	147(38.28)
	대학원 이상	8(2.03)	34(8.85)
직업	주부/무직	207(52.27)	4(1.06)
	전문직	30(7.58)	33(8.75)
	관리직	2(0.51)	62(16.45)
	사무직	27(6.82)	48(12.73)
	판매, 서비스직 및 상업	99(25.00)	121(32.10)
	기술 및 생산직	5(1.26)	53(14.06)
	군인	0(0.00)	2(0.53)
	학생	1(0.25)	0(0.00)
	기타	25(6.31)	54(14.32)
	가정 수입	200만원 미만	149(43.44)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14(33.24)	137(36.05)
300만원 이상		80(23.32)	98(25.79)
자 녀 수	1명	65(16.05)	62(16.10)
	2명	274(67.66)	258(67.01)
	3명	57(14.07)	57(14.81)
	4명	9(2.22)	6(1.56)
	5명	0(0.00)	2(0.52)

이하가 194명(49.24%)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의 경우 전
문대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248명(64%)으로
전반적으로 아버지들이 약간 학력이 높은 경향이었다. 부
모의 직업을 보면, 어머니들은 전업주부가 가장 많았고
(207명 52.27%), 아버지의 경우 판매, 서비스직 및 상업이
121명으로 가장 많았다(32.10%). 어머니들이 취업한 경우
판매, 서비스직 및 상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
정의 평균 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 300만원 이
상 되는 가정은 전체의 약 25% 정도로 나타났다. 자녀수
는 대부분이 2명이었고 다음으로 1명, 3명 순이었다. 4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은 드물었다.

2. 연구도구 및 절차

1)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의 개념 및 수행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이영환, 이진숙, 조복희(1999)가 개발한 생산적 아버지 노릇 척도를 본 연구자가 개발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구대상에 맞게 아버지용과 어머니용으로 수정하여 생산적 부모 노릇 척도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역할을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주로 물질적 자원 및 시간, 에너지, 심리적 자원을 자녀양육에 투자하고 자녀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고 느끼는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 부모의 시간, 애정, 에너지를 투자하는 자발적 참여 행동의 두 분야로 측정하고 있다.

양육 책임감 분야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최소한의 경제적 준비(예를 들면 저축이나 보험 등)를 하고 있다', '자녀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가능한 많이 투자한다', '자녀를 위해 불편하더라도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 등의 9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원제공자로서의 책임감 영역(Cronbach's $\alpha = .86$)과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기꺼이 자녀를 돌보아 주려고 한다', '아이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된 양육자로서의 책임감 영역(Cronbach's $\alpha = .71$)이 있다.

실질적인 행동과 관련된 양육 참여 분야에는 총 3개 영역이 있는데 '자녀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자녀의 연령에 적합한 장난감이나 책을 마련해 준다', '자녀가 궁금해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준다', '자녀 교육과 관련된 책을 읽거나 방송을 보고 듣는다' 등의 11문항으로 구성된 발달적지지 영역(Cronbach's $\alpha = .87$)과 '자녀와 함께 산책이나 드라이브를 간다', '자녀가 새로운 기술(예: 자전거타기)을 배우도록 도와준다', '자녀를 공원이나 동물원, 박물관에 데리고 간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등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된 함께 하는 활동 영역(Cronbach's $\alpha = .85$), '자녀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본다', '자녀가 친구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을 갖는다', '자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 '자녀가 좋아하는 놀이나 TV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다', '자녀에게 기본 생활 습관을 가르친다' 등 9개 문항으로 구성된 돌보기 및 지도 영역(Cronbach's $\alpha = .80$)이다. 각 문항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0 - 전혀 중요하지 않다. 4 - 매우 중요하다)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2) 연구 절차

연구자가 수정한 생산적 부모 노릇 척도로 영아기, 유아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 각각 3쌍씩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각 단계에

적절하게 문항을 조금씩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자녀와 노는 상황을 물어보는 문항을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자녀와 대화하거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식으로 수정하였다.

본조사를 위하여 D시에 위치한 영아반이 있는 어린이집 6곳과 유치원 2곳의 영아반과 유아반,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에서 담임 선생님들의 협조를 얻어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질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 때 질문지를 가져가는 아동의 출생순위를 첫아이로 통제하였다. 또한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가정의 경우, 아이아버지와 어머니는 질문지를 가져간 아동을 생각하면서 답을 하도록 명시하였다. 수거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한 총 질문지수는 779부였다.

IV. 연구 결과

1.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1)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정한 각 영역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았다. 아버지들이 응답한 각 영역별 평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F=.65$), 어머니들이 응답한 각 영역별 평균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F=.63$). 즉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아버

<표 3>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하는 아버지 역할

		아버지 (n=380)	어머니 (n=380)	paired-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양육 책임감	자원 제공자	3.74(.69)	3.79(.72)	1.67
	양육자	3.78(.71)	3.88(.79)	2.98***
양육 참여	발달적 지지자	3.61(.71)	3.74(.74)	3.83***
	돌보기 및 지도자	3.67(.69)	3.82(.70)	4.47***
	함께하는 활동자	3.70(.78)	3.91(.76)	6.14***

*** $p < .001$

지 역할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의 생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각 쌍 별로 각각 아버지의 역할에 대하여 평정한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실제로 부부간 아버지 역할에 대한 생각은 자원제공자로서의 책임감을 제외한 모든 하위 영역에서 차이가 났다. 흥미로운 점은 차이가 나는 양육자로서의 책임감, 발달적 지지자의 역할, 돌보기 및 지도자의 역할, 함께 하는 활동자의 역할 모든 분야에서 아버지들 자신보다 어머니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들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에 비하여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아버지가 자원제공자로서의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동의하였다.

2)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정한 각 영역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았다. 아버지들이 응답한 각 영역별 평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F=3.25$ $p<.01$), 어머니들이 응답한 각 영역별 평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F=2.08$). 즉 어머니들은 자원제공자와 양육자로서 책임감이나, 발달적 지지자, 돌보기 및 지도

자, 함께 하는 활동자로서의 어머니 역할이 모두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아버지들은 어머니에 역할 중 특히 양육자로서의 책임감과 돌보기 및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녀와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은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부간의 생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각 쌍 별로 각각 어머니의 역할에 대하여 평정한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역할은 자원제공자와 양육자로서의 책임감이나 돌보기 및 지도자로서의 어머니 역할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동의하는 편이었다. 발달적 지지자로서 어머니 역할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함께 하는 활동자로서의 어머니 역할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보였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을 어머니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어머니들은 아버지들보다 자녀와 함께 있어주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표 3>에 제시된 수치보다 어머니에 대한 수치가 모두 높았다는 점이다. 즉,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아버지의 역할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보였는데 이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역할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보아진다.

2.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의 변화

1)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하는 자녀의 발달 단계별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아기(1-4세), 유아기(5-7세), 초등학교 저학년(8-10세), 초등학교 고학년(11-13세), 청소년(14-18세)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그들이 평정한 부모역할의 각 영역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을 비교하였다.

아버지들 스스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모든 하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역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들이

<표 4>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하는 어머니 역할

		아버지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역할 (n=380)	어머니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역할(n=380)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양육 책임감	자원 제공자	4.25 (.52)AB	4.21(.56)	1.05
	양육자	4.38 (.56)A	4.35(.58)	.95
양육 참여	발달적 지지자	4.19 (.58)AB	4.12(.63)	2.36**
	돌보기 및 지도자	4.38 (.50)A	4.40(.52)	.76
	함께하는 활동자	4.04 (.62)B	4.17(.57)	3.53***
F		3.25**	2.08	

** $p<.01$, *** $p<.001$

<표 5>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하는 자녀의 발달 단계별 아버지 역할 변화

자녀의 연령	양육책임감				양육참여					
	자원제공자		양육자		발달적 지지		돌보기 및 지도		함께 하는 활동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1-4	3.91A (.61)	3.92 (.63)	3.98A (.59)	4.12A (.61)	3.97A (.56)	4.01A (.63)	3.88A (.57)	3.92 (.55)	4.00A (.62)	4.22A (.76)
5-7	3.77AB (.66)	3.81 (.65)	3.87AB (.68)	3.94A (.71)	3.66AB (.68)	3.80AB (.61)	3.65AB (.73)	3.83 (.56)	3.77A (.76)	3.98AB (.63)
8-10	3.71AB (.64)	3.79 (.61)	3.55B (.61)	3.85AB (.56)	3.50BC (.61)	3.68AB (.65)	3.54AB (.70)	3.81 (.63)	3.63AB (.68)	3.79BC (.77)
11-13	3.74AB (.70)	3.78 (.58)	3.80AB (.72)	3.81AB (.77)	3.55BC (.75)	3.66AB (.62)	3.68AB (.69)	3.79 (.62)	3.62AB (.76)	3.86ABC (.56)
14-18	3.48B (.80)	3.66 (.78)	3.51B (.90)	3.51B (.62)	3.1C (.78)	3.45B (.69)	3.44B (.75)	3.74 (.66)	3.30B (.75)	3.53BC (.68)
F값	2.73*	.96	5.01***	4.68**	10.39***	5.19***	3.46**	.66	6.55***	7.24***

* p<.05, ** p<.01, *** p<.001

스스로 생각하는 자원제공자로서 아버지 역할은 자녀가 영아일 때와 유아일 때 차이가 나고 유아기, 아동기일 때는 유사하다가 자녀가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다시 차이가 났다. 양육자로서의 책임감 영역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책임감을 제일 많이 느끼고 유아기, 초등학교 저학년,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비교적 적게 책임감을 느낀 반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의외로 양육자로서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아버지 역할의 경우는 결과가 약간 달랐는데 자원제공자로서 아버지의 책임감과 돌보기 및 지도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어머니의 생각은 자녀의 발달 단계에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육자로서 아버지의 책임감과 발달적 지지자,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자로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어머니의 생각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자원제공자로서의 책임감 영역에서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아버지 역할에는 차이가 없었다. 발달적지지 영역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가 영아일 때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중요도가 감소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때 영아기, 유아기, 초등학교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간에 아버지 스스로 생각하는 역할 중요도의 차이가 보고된 반면, 어머니들의 경우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더 큰 연령의 어머니들, 그리고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아버지 역할의 중요도에만 차이가 나타났다. 돌보기 및 지도 영역에서는 어머니는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의 발달 단계별로 차이가 없다고 한 반면, 아버지는 자녀가 영아기일 때, 유아기와 학동기일 때, 청소년기일 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하는 활동면에서는 아버지는 자녀가 영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일 때 역할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반면, 어머니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역할은 각 단계마다 모두 차이가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점차 감소하던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도가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높아졌다 는 점이다.

한 편, 부부간 생각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자녀의 발달 단계별로 각 영역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점수 차이 짝 지은 t검정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들은 아버지 역할 중 특히 양육자로서의 책임감 영역과 자녀와 함께 활동을 해주는 참여 영역에서 부부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양육자로서 아버지의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t = 3.84 p<.05) 또한 자녀와 함께 아버지가 활동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t = 4.10 p<.05).

5-7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 특히 아버지의 양육 참여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특히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중요 하게 생각하였다. 즉,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아버지의 발달적지지 행동(t = 3.83 p<.05), 자녀를 돌보는 행동 (t=3.91, p<.05), 자녀와 함께 놀아주는 행동(t=4.03, p<.05) 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에도 어머니 들이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양육자로서의 책임(t=5.01,

$p<.01$)과 돌보기 및 지도 행동($t=4.93$, $p<.01$)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는 함께 활동하는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t=4.61$, $p<.01$).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 행동 중 발달적지지 행동($t=5.11$, $p<.01$)과 돌보기 및 지도 영역($t=5.01$, $p<.01$)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아버지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하는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아기(1-4세), 유아기(5-7세), 초등학교 저학년(8-10세), 초등학교 고학년(11-13세), 청소년(14-18세)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그들이 평정한 부모역할의 각 영역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을 비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어머니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많이 일치하는 편이었는데 자원제공자로서의 책임감 한 영역만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모두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변화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위 영역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원제공자로서의 책임감 영역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의 발

달단계에 따라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양육자로서의 책임감 영역에서는 영아기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큰 차이가 없다가 자녀가 청소년이 되면서 생각의 차이가 나타났다.

양육 참여 분야를 보면, 발달적지지 영역과 돌보기 및 지도 영역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하는 양상이 동일했는데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그 다음, 유아기, 초등학교기, 청소년기 순이었다. 특이한 점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어머니들보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돌보기 및 지도 행동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함께하는 활동 영역에서도 역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각이 매우 비슷한 유형을 보였는데, 더욱 성숙한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함께 활동을 해주는 어머니의 역할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자녀를 둔 부모들은 모두 어머니의 역할을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자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한 편, 부부간 생각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자녀의 발달 단계별로 각 영역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점수 차이 짝지은 t 검정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아버지의 경우와는 달리 어머니 역할에 대해서는 부부간 비교적 많은 부분에서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8-10세 초등학교 자녀와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부들의 경우에만 부부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부들은 양육 책임감과 양육 참여 모든 분야에서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표 6>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하는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어머니 역할 변화

자녀의 연령	양육책임감				양육참여					
	자원제공자		양육자		발달적 지지		돌보기 및 지도		함께 하는 활동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4	4.36 (.62)	4.29 (.61)	4.53A (.72)	4.52A (.72)	4.50A (.92)	4.43A (.61)	4.54A (.76)	4.55A (.61)	4.27A (.64)	4.28A (.61)
5-7	4.32 (.65)	4.27 (.56)	4.40AB (.39)	4.44A (.35)	4.28AB (.71)	4.21AB (.56)	4.39AB (.61)	4.45AB (.82)	4.18AB (.61)	4.09AB (.49)
8-10	4.27 (.47)	4.08 (.54)	4.46A (.62)	4.26A (.49)	4.18B (.65)	4.03B (.76)	4.38AB (.83)	4.22BC (.61)	3.92BC (.97)	3.94A (.62)
11-13	4.23 (.43)	4.26 (.62)	4.32AB (.73)	4.32A (.61)	4.06B (.97)	4.04B (.65)	4.33AB (.67)	4.43AB (.76)	3.98AB (.47)	4.00A (.56)
14-18	4.08 (.61)	4.02 (.81)	4.09B (.52)	3.95B (.78)	3.75C (.60)	3.68C (.63)	4.21B (.63)	4.14B (.43)	3.61C (.61)	3.55B (.54)
F값	2.08	2.70*	4.22**	8.07***	14.47***	13.27***	3.50**	6.45***	10.12***	9.20***

* $p<.05$, ** $p<.01$, *** $p<.001$

여 다르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어머니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즉 자원제공자($t=3.95, p<.05$), 양육자($t=3.98, p<.05$), 발달적 지지자($t=3.82, p<.05$), 돌보기 및 지도자 영역($t=3.86, p<.05$)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어머니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는 양육자로서 책임감($t=3.82, p<.05$)과 함께 하는 활동 영역($t = 2.98, p<.05$)에서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부모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새로운 부모역할을 제안해보고자 영아기, 유아기,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의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 총 779명을 대상으로 자신과 배우자의 부모 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하여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동일하게 생각하는 듯 하였으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하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각에 차이가 있었다. 즉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이 어머니의 역할보다는 불분명하게 형성되어 어머니들이 양육 파트너로서 아버지들에게 바라는 것과 아버지들 스스로 생각하는 역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시대 많은 부모들은 남녀 양성에 대한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전통적 역할이 점차 변하고 있다는 Hamner와 Turner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아진다(이유갑, 박천식, 강종구, 장형석, 권남형 공역, 2002). 그러나 아버지들의 경우 전통적일 고수하고 있는 힘센 아버지와 아동 양육 과업을 더 많이 수행하고, 그들 자녀들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아버지들 간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어머니 역할보다 전체적인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듯 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역할을 단독적으로 연구한 연구들(김기현, 1998; 허선자, 1992)에서는 미처 나타나지 않은 결과로 차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나 부부 상담시 적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하는 점을 비교한 연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검증할 만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아버지, 어머니 모두 부모 역할 모든 하위영역에 있어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곧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자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현실이 반영되고 있는 결과라고 보아진다.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자원제공자로서의 역할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그 중요성이 크게 변하지 않은 반면 양육자로서의 책임감이나 발달적지지, 돌보기 및 지도, 함께 하는 활동을 해나가는 역할은 어린 영아를 가진 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느꼈고 청소년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모든 범주에서 부모의 역할을 비교적 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아버지들의 경우 영아를 둔 아버지들이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양육에 참여하는 행동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양육책임감 분야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부터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까지 점진적으로 중요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특별히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머니의 역할에 대하여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변화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책임감 영역은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 양육참여 분야에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발달적으로 지지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유아기, 초등학교기, 청소년기 순으로 그 중요도가 낮아졌다. 돌보기 및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생각도 비슷한 양상이었는데 특이한 점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어머니들보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돌보기 및 지도 행동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함께 하는 활동 영역에서도 역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각이 매우 비슷한 유형을 보였는데, 더욱 성숙한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함께 활동을 해주는 어머니의 역할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자녀를 둔 부모들은 모두 어머니의 역할을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자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어머니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어머니 역할과 아버지들 스스로 인식하는 아버지 역할에 있어서 양육자로서의 책임감과 돌보기 및 지도자의 역할의 중요성이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부터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감소하다가 자녀가 11-13세가 되면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인데 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다시 돌아보는 것일까?

이는 단순히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교육적 자극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부모의 역할이 부각되는 현재 우리 사회의 실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자녀의 수의 문제가 적용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부모와 자녀의 발달적 상호작용시 한 가정에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서로 연령이 다른 자녀들의 각각의 발달적 욕구에 동시에 반응하기 위하여 부모가 갈등과 압박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Bigner, 2002).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들에게 제안하자면 1-4세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좀 더 나이든 자녀를 둔 부모들보다 모든 부모 역할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나 특히 아버지가 좀 더 양육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여갈 필요가 있다. 5-7세 유아를 둔 아버지들은 자신의 양육참여 행동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는 행동들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8-10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좀 더 자신의 모든 역할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11-13세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경우, 아버지들은 좀 더 자녀와 많은 활동을 함께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4-18세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머니들은 주로 발달적 지지와 자녀를 지도하는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버지들은 좀 더 자녀와 시간을 함께 하고 양육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1세에서 18세까지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 쌍을 광범위하게 대상으로 삼아 현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가 생각하는 부모 역할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부모 역할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설명하여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부모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자신의 역할과 서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알아봄으로써 부모와 자녀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임상적인 상담 뿐 아니라 부부간 문제를 가진 가족을 위한 가족 상담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결과에 보고된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역할의 중요성이 감소되는 경향은 실제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감소되었을 수도 있지만 연구 도구로 측정하지 못한 부분으로 부모 역할이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 중요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난 부분은 후속연구에서 좀 더 세심하게 연구된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 등을 통한 질적인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자료 수집 당시 아동의 출생순위를 첫 아이로 통제하고 질문지를 가져간 아동을 중심으로 답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취했으나 실제로 발달단계가 다른 수준의 자녀를 두 명이상 양육하는 경우 부모의 응답이 다른 자녀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즉 부모가 생각하는 부모역할이 복합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특히 연구결과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다시 부각되는 점은 다른 자녀의 영향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다른 관련변수를 모두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산분석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이 분산분석의 결과가 진짜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인지, 아니면 부모의 코호트 차이, 즉 젊은 부모와 나이가 많은 부모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짓기 어렵다. 시대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 급속하게 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연구의 한계라고 사료된다.

주제어 : 발달단계, 부모역할

참 고 문 헌

- 강기숙, 이경님(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려성이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2(4), 115-132.
- 김기현(1998).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9), 49-62.
- 김민정, 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문혁준(1998).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1), 91-101.
- 박성연(1998). 영아기 정서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3세 아동의 행동억제, *대한가정학회지*, 36(4), 19-33.
- 박주희, 이은혜(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 관계 관리전략, *아동학회지*, 22(4), 1-15.
- 연미희(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7), 111-122.

- 유영주, 김경신, 김순옥(2000). 가족관계학. 서울:교문사.
- 이연섭, 강문희(1998). 부모교육. 서울: 정민사.
- 이영환, 이진숙, 조복희(199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산적 아버지노릇: 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2), 79-89.
- 이유갑, 박천식, 강종구, 장형석, 권남형 공역(2002). *현대 사회와 아동양육*. 서울: 교육과학사.
- 이은화, 이경우 공역(1991). *부모교육입문*. 서울: 창지사.
- 이재연, 김경희(1989). *부모교육*. 서울: 양서원.
- 정옥분, 정순화(2000). *부모교육*. 서울: 양서원.
- 정현숙, 유계숙, 어주경, 전해정, 박주희(2002). *부모학*. 서울: 신정.
- 정현희, 최경순(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성역할, 정서반응,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9(3), 191-208.
- 조성연(2001). *부모됨의 교육*. 서울: 동인문화사.
- 허선자(1992). 아버지의 역할 지각 및 양육 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이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Belsky, J, Volling, B. L. (1987). Mothering, fathering, and marital interaction in the family triad during infancy: Exploring family system's processes. In P. W. Berman & F. A. Pedersen(Eds.), *Men's transitions to parenthood: Longitudinal studies of early family experience*(pp. 37-6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igner, J (2002).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6th ed.). NY: Macmillan Publishing Co.
- Hamner, T. J, Turner, P. H. (2001).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4th ed.). MA: Allyn and Bacon.
- Lamb, ME (1977). Father-infant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in first year of life. *Child Development*, 48, 167-181.
- Lewins, M, Weinraub, M (1976). The Father's role in the child's social network. In M. Lamb(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pp. 157-184). New York: Wiley
- Kuczynski, L (2003). *Handbook of Dynamics in Parent-Child relations*. London: Sage.
- Oliveri, ME, Reiss. D (1987). Social networks of family members: Distinctive roles of mothers and fathers. *Sex Roles*, 17, 719-736.
- Thompson, L, Walker, AJ, (1989). Gender in families: Women and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845-871.

(2005. 05. 04 접수; 2005. 06. 03 채택)